

June 08 인내,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기

- 요한계시록 3:10; 마태복음 7:7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참아 낸다는 데서 지구력과 구별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성도의 미덕임은 분명하지만,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듣고, 믿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현상과 정서적인 반응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시류와 대세에 편승하여 같은 흐름을 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조언과 반응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언가 하도록 몰아갑니다. 시시각각 변해 가는 정치·경제·사회 현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인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광야의 시간, 메마름과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지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구하고 찾을 때,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은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욥 13:15). 육은 선불리 의미를 부여하거나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까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인내는 연약한 자의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과 정서적 반응을 멈추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음성대로 즉각 힘써 순종하는 능동적 반응이 인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 ❶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 ❷ 단순히 견딥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까?